

제 61 호

에이트리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X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61호

메아리

2019. 1

# CONTENTS

## 03. 여는글

새해 / 거주인 장○주

## 04. 지원사업

버킷리스트 두 번째 이야기

/ 거주인 박○성, 박○민, 홍○중, 김○상, 김○택

## 06. 종사자 글

첫 해외 힐링연수 / 종사자 박○규

## 08. 봉사자 글

함께하는 삶 / 노성중21기 김○대

## 09. 사회복무요원 글

향기로 피어나는 젊음 / 선○웅, 김○혁, 임○무, 이○범, 홍○진

## 10. 사랑방

레인보우 방송부

## 12. 소식방

나눔 plus, 행복 plus

하나금융후원 / 지정기탁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장관표창 /

이형섭복지재단 후원 / 보치아대회 / 해군참모총장방문

##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 18. 수입지출현황

## 19. 성모의기사수녀회



발행일 | 2019년 1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여는글

## 새 해

† Maria

그동안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황금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얀 새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님들의 새해라는 도화지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 나가셨으면 합니다.

고마운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주인 장○주

또다시 머리위에  
태양이 떠오른다

한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듯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  
몰려오고...  
때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오른다.

새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고  
희망과 사랑을 안고 오기에 기다려진다  
새해에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답은 하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며 지내는 것

살아오며 느낀점...  
날 지탱해주는 것은 주위의 고마운 분들의 기도라는 것

희망이 밀려오고 새해가 기다려진다.



지원사업

## 버킷리스트

### 두 번째 이야기

| 한끼100원나눔 운동본부 지원사업



7월

#### 고향방문(문경) - 박○성

문경고향방문을 앞두고 날씨가 너무 더워 동행해주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행길에 올랐다. 옛 고향집을 보고 싶어 문경을 방문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을까 내가 살던 집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행이 기억에만 있던 친척을 만나 고향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났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때의 기억으로 한동안 행복할거 같다.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9월

#### 가족여행(부산) - 박○민

설레며 기다리던 버킷리스트 프로그램 일환으로 34년 동안 꿈만 같았던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 광안리 해수욕장, 자갈치 시장, 아쿠아리움을 둘러보았으며 먼 길에 들리는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는 추억 또한 잊지 못 할 거 같다. 꿈을 이루었고 여행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함박웃음이 난다.

해운대 앞에서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였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된다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주어진 생활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 한 끼 100원 나눔 운동 본부에도 감사드린다.



10월

**고향방문(삼척) - 홍○중**

고향방문(삼척)은 일생에 있어 귀하고 값진 행복감으로 느껴진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함께 자란 동생에 대한 추억이 서려있는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가봄으로써 어린 시절 좋은 추억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동생과의 유대가 조금 더 좋아졌으며 원에서 신경 써서 동행해준 직원과 봉사자에 대해 고마움과 배려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10월

**바다여행(여수) - 김○상**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여행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난 여수 밤바다가 보고 싶어 여수여행을 택했고 마음 설렘으로 기다렸다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과 약속을 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바닷가 찻집 그리고 저녁엔 횟집에서 회도 사주어 못 먹는 술도 한잔 카야~ 숙소까지 같이 와 즐겁게 놀았다. 이제 언제 볼 수 있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날 여기까지 와서 오동도를 못 보면 안 된다며 전망대 도 올라가 여수 전경을 보니 가슴 탁 트인 것 느낌을 받았다 너무 좋았다. 예전 직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갓김치도 주었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 보내 준다면 아쉬움을 남긴채 여수여행을 마쳤다.



11월

**바다여행(남해) - 김○택**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던 여행으로 남해의 독일마을에 도착해 색다른 건물들과 앞에서 반짝이는 바다가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모의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과 집에만 명절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집들과 풍경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됨에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좋은 추억으로 남은 남해여행이었습니다. 생각만 해오던 남해를 여행하게 되어 행복했고, 이번 여행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사자글

## 첫 해외 힐링연수



생활지도원 박성규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 연수에 2박3일 일정으로 5명의 직원과 함께 일본큐슈지역으로 힐링 여행의 기회가 주어졌다.

주방여사님과 생활팀4명, 기획팀 직원이 함께하였는데 언제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구성원 조합자체가 참 신선하였다.

첫 해외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긴장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많은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 시간 20분가량 비행시간이 끝나고 구마모토공항에 도착하였는데 한국이라는 착각이 들만큼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다. 구마모토에서 배부에 있는 숙소를 이동하며 아소산을 넘어가며 넓게 펼쳐진 초원과 갈대를 볼 수 있었다. 풍경이 사뭇 우리나라와 달라 일본에 와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이드는 소심한 우리일행에게 운이 아주 좋으면 지진, 화산폭발, 스나미 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지진이 나면 대피방법까지 알려주었고, 일행모두 숨을 고르며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약간의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며 시작되었고, 숙소에 들어와 원장님과 영상통화를 하니 밝은 미소로 반겨주셔서 일행모두 즐겁고 밝은 미소로 통화를 하였다. 통화를 마치고 숙소 앞 마트에 체험차 맥주와 안주류를 사러가는 길은 지열로 쪽쪽 갈라져있었고, 곳곳은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불안함~이것 또한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는다.

일본의 유명한 맥주와 여사님이 챙겨온 말린감을 안주삼아 간단하게 웃고 떠들며 천연온천을 했다. 구마모토는 천연온천이 엄청 유명해서 꼭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노천탕에 있는 온천을 이용했다. 밤늦게 온천에 들어



가니 그동안 일하면서 뻐근했던 근육들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함을 따뜻한 온천물로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기운이 회복되고 진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다.

둘째날에는 가마도 지옥관광을 하며 족욕 체험을 하니 몸이 후끈 달아올라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꼭 맛봐야하는 사이다와 달걀을 맛있게 먹고, 유후인 거리로 이동하여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구경하며 맛 있다는 고로케도 맛보았다. 여행의 참맛은 먹거리 아닌가? ㅋㅋ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자연 본연의 것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보존보다 개발을 하기에 급급한데 배워야 할 점도 많다는 생각을 한 여행이었다.

유노하나 유황재배단지, 태자부 천만궁, 케널시티 관광을 하며 둘째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저녁식사를 먹고 일본 사람들은 소식을 해서 그런지 성인남자가 먹기에는 적은양이어서, 나와 경준샘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호텔 근처 맛있다는 회전 초밥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배를 채웠더니 이성을 찾았고 숙소로 돌아와 힘들었는지 바로 잠들었다.

마지막날 하카타만에 있는 면세점에 들러 감사의 의미로 직원과 거주인에게 하카타에서 유명간식 거리를 사고 일본 전통음식 나베를 먹으며 배를 채웠다. 마지막 코스인 하카타 타워를 올라가 경치를 보니 바다가 훤히 보여 너무 이쁘게 보였다. 관광이 끝나고 다시 구마모토 공항으로 돌아가며 2박3일 일정이 짧게 느껴지고 아쉬웠다.

2018년 여행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아 매우 설레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이었고, 성모의마을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힐링 여행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봉사자글

## 함께하는 삶

노성중21기 김○대



노성중학교 21회 동창생들 2014. 05. 30 성모의마을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벌써 5년째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동창 모임이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 없을까 고민하다 사회공헌 활동 위주의 동창모임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고, 매월 후원금을 모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꿈을 잃은 어린이에게 희망을~)에 가입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1:1결연하여 도움을 주고, 성모의마을에서 봄, 가을 1년에 2번 동창 모임 겸 거주인들과 야외 고기파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캠핑으로 다져진 친구들의 고기 굽는 실력으로 갓 구워내 직화 구이를 너무나 맛나게 드시고, 흡족해 하시는 표정, 행복한 웃음소리에 친구들 모두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하죠~

남자 동창생들은 불 피워 고기와 새우를 굽고, 같이 따라온 아들, 딸들은 고기를 나르고 여자 동창생들은 식사보조를 하고, 이제 5년차라 무엇을 하여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착!착!착!입니다.



또, 노성21회 동창들 봉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선·후배님의 찬조와 재능기부로 더욱 활력 있고, 알찬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짧은 5년의 봉사활동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행복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아빠를 따라온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의 삶을 배우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고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 또한 더욱 클거라 생각됩니다.

노성 21회 친구들 앞으로도 쪽~뜨거운 가슴 식지 않고, 함께하는 “삶” 만들어 갈거예요~

## 사회복무요원 글



### 김○혁

솔직히 말하면 장애인과 사회복지는 관심 밖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성모의마을 거주인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함께 하다보니 정도 많이 들었고, 그들은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다를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모의마을은 거주인들에게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부르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1년을 밟거름 삼아 소집해제 이후에도 사회복지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할것입니다.

### 임○무

성모의마을은 어떤곳일까 기대를 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불편하고.. 과연 이곳에서 내가 2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둘 익숙해지며 거주인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자 이곳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고 장애인들도 여러 성격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이 언제 갈까 불안했지만 벌써 여기 온지 8개월이 되었고 2년이 더 이상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 홍○진

처음 봉사활동때 머리를 깨물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기에 이곳 성모의마을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불안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친절함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을 넘어 두 달째인 저는 지금 이곳이 편안합니다. 힘든 일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모두 함께'라는 생각이 들면 꽤나 즐거워지는 편입니다 '까마득한' 소집해제일이 '벌써'가 되는 그때까지 성실히 복무할 예정입니다.

### 이○범

이곳에서 복무를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저를 잘 챙겨주시는 가족분들 때문인지 근무를 하면 할수록 뿌듯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해하시는걸 도와 드리니, 보람도 느껴지고 가족 분들과의 정도 점점 깊어지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선○웅

제가 성모의마을에 온지 어느덧 14개월 이란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다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친근감 있게 대해주셔서 적응을 좀 빨리한거 같아요. 이곳에 오고 나서 몸이 불편한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힘든 만큼 뿌듯한 점도 많았고, 가족 분들 덕분에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얻고 가는거 같아 성모의마을을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곧 전역을 하면 이곳을 떠나겠지만, 이후에도 좋은 추억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2019.11.22.  
소집해제 추카추카~

사랑방



## 레인보우 방송국



### 방송부 소개

성모의 마을 거주인들에게 일상 생활에 활력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 추구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자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생활의 소식과 사연 및 축하 메세지 전달 및 음악 방송을 통해 가족들의 어울림, 즐거움을 전달하는 방송 지향

### 레인보우 방송국 의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무지개와 같이 빛나는 방송국을 만들어 보자는 뜻  
: 공모를 통해 최종선정(거주인 황○영)

### 방송부 운영진

- 담당 : 최상태
- 기술부 : 박○성, 이○지
- 기자 및 앵커 : 김○석, 임○수, 박○용, 신○희, 장○주(총무)

### 운영시간

- 월~목 : 11시 20분~12시 20분 / 신청곡중심의 음악방송
- 금(본방송) : 13시 30분~ 14시 30분 / 매주 주제를 정해 방송 진행

### 활동내용

방송부 기자들과 DJ를 하루에 한명씩 정하여 스스로 방송하고  
생활실 음악제공 기자들은 각 방에서 신청곡과 사연,  
인터뷰 내용을 작성 하여 방송



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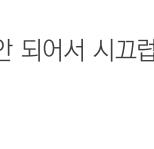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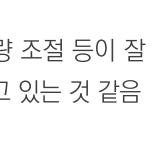
박○성



이○지



김○석



박○용



신○희



### 성모의마을 반응

-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처음 방송을 시작 했을때는 음량 조절 등이 잘 안 되어서 시끄럽다는 반응도 보였으나, 점점 방송을 하면서 직원과 거주인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음
- 음악이 나오니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 있음.



## 방송부 활동 소감

### ● 임○수

우선은 방송부 활동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방송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걱정도 되고 하였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가며 진행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우리가 성모의마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도움 받으며 살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 ● 이○지

매우 기분이 좋다! 방송부 운영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좋고 매일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평상시에 내 마음이 약간은 우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방송부를 시작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우 행복합니다. 방송부 파이팅!^^



## 앞으로의 진행방향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시작해서 운영진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지금은 사연과 신청곡 위주로 방송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이벤트 및 퀴즈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방송부 목표

방송부 운영진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방송부 활동을 통해 자립심과 자긍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운영진들이 모든 방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 격려가 필요 합니다. 방송부가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식방

## 나눔 plus, 행복 plus



### \* 하나금융나눔복지재단후원

#### (노트북,프린터기,물리치료실 방수공사,김치)

하나금융나눔재단 지원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지붕방수공사 및 컴퓨터 구입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천시 물리치료실 누수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붕보수공사로 인해 누수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5대), 데스크탑, 모니터, 프린터기(각1대) 교체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 50박스(500Kg)도 후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하나금융나눔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성모의마을 모두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 따뜻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하나금융나눔복지재단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지정기탁 (한국타이어)

2018년 지정기탁사업으로 후원금을 지원 받아 조리실 물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받침용 선반구입과 분전반 이설을 하였습니다. 항상 성모의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해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 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은 11월 2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동그라미봉사단은 본 시설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청소, 식사 보조와 말벗 봉사를 지속하고 사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봉사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 \* 이형섭복지재단(냉·난방기지원)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원을 해주는 이형섭복지재단 후원으로 여자생활관 식당과 프로그램실에 냉방기2대,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와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이형섭 복지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꾸준한 관심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 \* 우리은행 후원

2019년 뇌병변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사업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상담을 통해 변화되는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기대되고 가슴이 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은행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보치아대회

####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가까운 계룡에서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려 논산시를 대표하여 보치아 부분 이○지, 김○택, 김○석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동안 연습하며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윤봉길배 충청남도 어울림 보치아대회

충남 어울림 보치아대회에 김○택, 이○지씨가 직원들과 팀을 이루어 참석했습니다. 이○지양과 한팀을 이룬 성모B팀은 의좋은 형제부 2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보였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루종일 많은 경기를 하며, 최선을 다한 성모의 마을 보치아팀~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 \* 해군참모총장 방문

한해의 끝자락에서 성모의마을에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둘러보며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모의마을 가족들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7월



07.02~03 충청대 간호학과 봉사

07.10 한국타이어  
삼겹살파티

07.19 당일여행(대천)

07.27 직원교육  
(인권, 서비스마인드)

8월



08.01~05 성모물놀이장 운영

08.08 LH대전교육본부

08.13 한국타이어 가족봉사단

08.14 파랑새합창단 공연

9월



08.18 대전성모병원 봉사

09.01 직지우쿠렐레 공연

09.06 LH토지공사



09.08 대형환경, 단국대치과 의료봉사

09.21 국민건강관리공단  
(대전중부지사)방문

09.27 직원 체력단련대회

## 10월



10.09 거주인 인권교육



10.10 지역사회 봉사활동



10.12 독감접종



10.17 대전은하수예술단 공연



10.18 가을소풍(부여, 내장산)



10.19 반곡초등학교 공연

## 11월



11.10 배추수확



11.14~15 김장

11.16 직원교육  
(인권, 장애인인식개선, 소양교육)

11.17 메리워드양상불 공연



11.27 소방훈련



11.27 채밍난타로빅 공연



11.28 노래경연대회



11.30 논산홈플러스 방문

## 12월



12.01 배제대공연



12.02 개그빅콘서트 관람



12.11 한국타이어와 영화관람



12.13 연산치과 진료



12.27 종무식



12.28 팝페라가수 정은경 공연





#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 ●●●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존경배려나눔회.(주)건축사무소이노건축.대건중학교.유사랑.청주일로하우클럽레동우회.하나금융나눔재단.김재홍.민애란.백혜린.빈임옥.염명란.염미란.오복경.오지원.윤성열.이동엽.전경희.정우진

## ●●● 후원금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주)대율.(주)라이온켐텍.(주)리드텍.(주)제넷바이오.(주)진미식품.(주)휴베나.궁골식품.궁동성당.금강전기.대림농장.대전내동성당.대전성모기사회.대촌1.2리주민.대형환경(주).동덕엔지니어링.동수기전.부모회.부창동성당.성모의기사수녀회.아이러브피플.월드카센타.육군계룡사랑후원회.윤메디팜.이형섭복지재단.일신주방.정다운한의원.태양철물건제상사.하나병원우성근.한국드라이베아링(주).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해피빈.강대훈.강덕일.강명순.강복순.강신균.강애선.강영미.강영수.강인숙.강정미.강치중.강창희.강호정.고순덕.고연승.고영숙.고태성.고효진.곽동용.곽명자.곽성훈.곽전구.곽태희.구교상.구본관.구자희.구청자.권기문.권민경.권상희.권순임.권연택.권태형.기영진.길숙종.김경미.김경숙.김경임.김광한.김근태.김기.김기철.김길자.김나리.김낙윤.김남순.김동일.김동화.김명식.김명중.김명화.김미선.김미숙.김미영.김미현.김민관.김민호.김병민.김복수.김복순.김봉진.김봉희.김부덕.김상현.김석환.김선아.김선엽.김선중.김성남.김성숙.김성태.김소영.김수복.김수자.김수현.김수희.김숙희.김순자.김승우.김시문.김양숙.김양식.김양임.김연희.김영규.김영부.김영숙.김영심.김영옥.김영임.김영자.김영택.김영희.김용구.김용목.김용철.김용희.김웅전.김윤미.김윤중.김윤하.김은경.김은미.김은숙.김은정.김은주.김은형.김응수.김의승.김익현.김인규.김인숙.김인옥.김인화.김일우.김정란.김정래.김정순.김정옥.김정하.김정호.김정희.김종길.김종대.김종성.김종심.김종영.김종원.김종윤.김종임.김종학.김주영.김준.김준형.김준호.김진숙.김진식.김진아.김진연.김진자.김진팔.김진희.김창수.김창식.김창현.김철수.김춘달.김춘자.김춘화.김태만.김태모.김태운.김한주.김한준.김현곤.김현수.김현옥.김혜경.김홍렬.김홍순.김홍식.김희경.김희성.김희순.김희옥.나승준.나판균.남궁각.남봉우.남상숙.남순애.노광원.노덕영.노아네스.노애선.노영례.노은숙.노희숙.도인록.류관숙.류재율.류홍.모상선.목동균.문경희.문창규.민경식.민병학.민선옥.박광천.박광필.박근수.박문평.박미나.박미희.박병삼.박병택.박복남.박상규.박선영.박선용.박선호.박성배.박성연.박승현.박순주.박승옥.박승현.박영숙.박용성.박윤자.박윤희.박은숙.박은정.박웅천.박점단.박정순.박정희.박종은.박종희.박주완.박준성.박지연.박진옥.박진홍.박찬배.박찬주.박찬현.박찬희.박창규.박창기.박춘지.박해운.박해임.박현미.박현숙.박혜경.박효식.방계순.방성식.방연우.방영자.배승호.배우재.배주옥.배지명.백길종.백성기.백승준.백진기.백화석.변경봉.변두균.변혜숙.복진을.서경자.서광자.서교분.서교택.서기련.서단아.서영숙.서장원.서정석.서지연.선우환호.선희순.설비선.성상업.성정도.성희창.소성섭.손경미.손석자.손세욱.손은숙.손형기.송관욱.송기성.송명옥.송순이.송영익.송재훈.송철영.송총실.수상덕.승병희.신경식.신미숙.신미순.신상오.신숙희.신순자.신순현.신연학.신이분.신정자.신진호.신향순.신호철.신효신.심명옥.심복섭.안남순.안명순.안문숙.안미훈.안상길.안성호.안종희.안주영.양미경.양옥석.양인일.양점숙.양태식.어완.엄기성.연제혁.염규홍.염운자.염주란.오경순.오광순.오명선.오명화.오석현.오숙자.오연임.오웅수.오일교.오점숙.오종오.오주영.오주은.오준식.오준이.오한나.오현경.오혜원.오화진.온유진.옹명임.우인자.우정화.우재춘.원용희.원재화.원종철.유경희.유명기.유명희.유미.유부림.유석종.유선희.유양호.유연희.유영구.유영민.유영주.유영철.유이선.유인운.유자현.유향옥.유혜영.육근홍.윤계열.윤길중.윤문경.윤병숙.윤석권.윤수자.윤순자.윤여분.윤여직.윤여철.윤영광.윤영섭.윤영희.윤옥자.윤옥희.윤완규.윤운화.윤재명.윤정순.윤진영.윤한섭.이강우.이경난.이경미.이경순.이경옥.이경자.이광수.이규옥.이기남.이기상.이기학.이누옥.이다리야.이다원.이덕례.이도엽.이도영.이동수.이동호.이두화.이명수.이명자.이미영.이민옥.이민표.이병숙.이병진.이복규.이상범.이상영.이상우.이상은.이선량.이성민.이성순.이성하.이세혁.이수경.이수형.이숙희.이순옥.이순주.이승준.이승훈.이연호.이연희.이영란.이영미.이영임.이영희.이용규.이용남.이우영.이웅호.이원길.이원웅.이월향.이유미.이윤복.이은선.이은수.이은진.이은철.이인엽.이인한.이장.이장현.이장희.이재룡.이재순.이재승.이재연.이전규.이정구.이정미.이정자.이존오.이종규.이종숙.이종옥.이주경.이준복.이진경.이진의.이진향.이진형.이충근.이치자.이택주.이평순.이한별.이해운.이해인.이향래.이현선.이현수.이현숙.이현희.이혜경.이혜숙.이혜영.이혜진.이호덕.이홍천.이화석.이화연.이홍재.이희영.임경수.임경옥.임덕순.임동훈.임문자.임미자.임민준.임민찬.임상수.임서윤.임세영.임은수.임재신.임찬욱.임향빈.임혜숙.장경수.장기우.장동수.장명호.장미화.장선옥.장순자.장영희.장우상.장원재.장유창.장정숙.장진영.장진희.장한순.전광운.전남숙.전선아.전연인.전용달.전창선.전혜련.전희

선.정경미.정경순.정경애.정계순.정병호.정보옥.정석임.정석환.정선미.정선수.정선주.정연수.정영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주.정재구.정지 풍.정지현.정창수.정총희.정하양.정혜숙.정화숙.정환림.정훈경.조규정.조남욱.조마르타.조성대.조성혁.조숙자.조숙희.조영감.조영록.조영홍.조영화.조 옥분.조용훈.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주현우.지영옥.지영철.직원상조회.진은영.차미정.차옥남.차은.채경란.채미자.최관집.최금옥.최덕화.최명희.최문 자.최백석.최범순.최병립.최봉순.최상윤.최상태.최선.최성근.최순옥.최영범.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인규.최인영.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해 경.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주현진.편재영.하만웅.하무순.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동림.한명화.한상선.한상조.한선학.한원규.한치 권.허신자.허충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홍광표.홍근선.홍명숙.홍성욱.홍승무.홍영옥.홍영일.홍예인.홍용의.홍윤정.홍은실.황규성.황규홍.황명구.황선 주.황선철.황인옥.황태성.황현숙

## 물품후원

김광호.김도희.김동민가족.김명례가족.갈매못성지.김부식가족.김용구(이노건축).김정임가족.김정철.김원혁가족.김연수가족.김현숙.길기진.김윤환.김영자(세실리아).강은옥.강두영.강채형가족.김자섭.권영학가족.국민건강관리공단(대전중부지사).남중현(갈마동성당).논산푸드뱅크.노성중학교.논산시청.논산계룡축협(장군마트).논산홈플러스.동구나무.동신주유소.덕명동성당.대건중학교.메리워드윈드양상블.박창순.박철민가족.박지연.박서옹가족.박성수가족.배주옥.배현경.부여성당.배제대실용음악과.삼성화재.상월새마을금고.신순자.성모기사회.손선미가족.성낙순가족.성모병원.씨튼영성의집.송촌동성당.임세영.임군수가족.이병석가족.이수민가족.연산중학교.이영순.이효진가족.윤희열가족.윤순도.이동기가족.이예지가족.이원선.이윤선가족.이동엽.임동훈.이지희가족.(주)애경.장재희가족.장태산정육점.정인숙.정창수.정은경.전혜선가족.충남교육청.충남도청건설정책과.최경덕(비오).최영현가족.차밍에어로빅.최상태.한국타이어.현대수산.한국전력공사.해군본부.LH한국토지공사(대전교육본부)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 그 외 |

냉장고, T 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정기자원봉사팀

갈마동성당.계룡대근무지원단.계룡성당.궁동성당.김윤중가족.김종필가족.내동성당.논산정신요양원.덕명동성당.도룡동성당.대교동성당.대형환경.반석동성당.백혜린.삼성화재RC나누미.삼위일체성당.성모병원.송인우.신관동성당.안종찬가족.전민동성당.한국타이어동그라미봉사단.한밭이발봉사단.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홍윤정.빈천시야.LH토지공사대전본부.

##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계룡고등학교.노성중학교.노성21기동창.논산계룡교육지원청동구나무.논산시파랑새합창단.도마동성당.동방고등학교.대건중학교.부여성당.상월농가주부회.송촌동성당.차밍에어로빅.최옥진.총청대 간호학과.천안우편집중국

## 이 · 미용봉사

김경순.오미애.랑쥬헤어.이안미용실.한밭이발봉사단

## 의료봉사

성모병원.단국대치과대학

## 꽃꽂이봉사

이명숙(루시아).정인숙(클라라).신희숙(스텔라)

## 공연봉사

메리워드윈드양상블.반곡초등학교.배제대실용음악과.청주직지심경우.쿨렐레동호회.팝페라가수 정은경외2.

## 미싱봉사

김정순.염영숙.이영임.이정.진영희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http://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        |                  |                    |
|--------|------------------|--------------------|
| • 농 협  | 461058-51-011210 | (대표전화 : 1588-2100) |
| • 국민은행 | 457-25-0005-696  | (대표전화 : 1588-9999) |
| • 하나은행 | 663-113251-00105 | (대표전화 : 1588-1111) |
| • 신한은행 | 100-009-187570   | (대표전화 : 1577-8000) |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       |                  |                    |
|-------|------------------|--------------------|
| • 농 협 | 351-0762-7852-13 | (대표전화 : 1577-2100) |
|-------|------------------|--------------------|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8년 07월 01일 ~ 2018년 12월 31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190,851	급 여	21,396
지정후원금	-	제 수 당	22,660
비지정후원금	164,504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3,800
		사회보험부담비	4,929
		기타후생경비	3,689
		기관운영비	550
		회 의 비	1,260
		여 비	273
		수용비및수수료	2,664
		공공요금	6,128
		제세공과금	138
		시 설 비	19,001
		자산취득비	8,360
		시설장비유지비	1,661
		자량비	
		연료비	180
		자활사업비	
	355,355	합 계	116,689

#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http://www.fsomik.co.kr)

##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 · 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1.5Km) → **성모의마을**

###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01 레이저 świat  
을  
즐기며 이는  
행운을  
사로잡습니다.

한국타이어와 동그라미 봉사단  
한가족 봉사회 D조와 함께하는 가을 낙엽이

▶ 주제